(제43권 31호)

오순절 후 열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8월 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42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1번 시편(Psalm) 142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브리서 (Hebrews) 11:5-6**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주님 품에"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을 기쁘시게"** **(Pleasing God)**		손 순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54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손 순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어왔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왜곡된 신앙과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 11:6, 눅 9: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한글개역 **히11:6**)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NIV **Hebrews 1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1 (주일)	8/2 (월)	8/3 (화)	8/4 (수)	8/5 (목)	8/6 (금)	8/7 (토)
본문	삿15 행19 렘28 막14	삿16 행20 렘29 막15	삿17 행21 렘30,31 막16	삿18 행22 렘32 시1,2	삿19 행23 렘33 시3,4	삿20 행24 렘34 시5,6	삿21 행25 렘35 시7,8

수/요/ 성/경/공/부 BACK TO SCHOOL 특/새

수요 성경공부 (8/4수 오후7:30)	"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고후8:16-9:5)
BACK TO SCHOOL 특새(8/7토오전6:30)	"지혜롭고 순결하라" (마10:16)

지난 주일(8/25) 말씀 (정재흥 목사)

"차이와 눈높이" (요 1:14-18)

차이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많아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 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인데, 혹시 우리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또한 어떻게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성육신(成肉身)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1)첫째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2)둘째는,. 나의 눈높이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성격이 별난 사람에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인격이 미숙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내면의 능력'이 더해져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으며, 죄에 대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내면의 능력을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 메/모